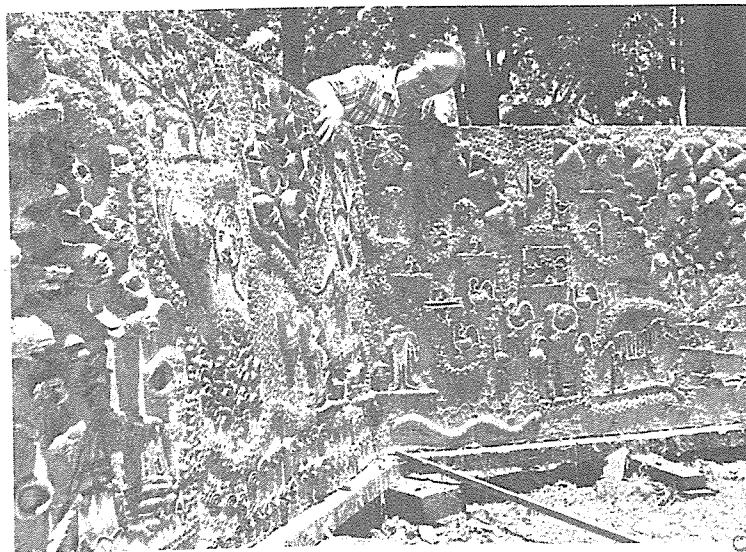


콘크리트의 새로운 浮彫方法



Paul Ritter 氏와 “Sculpcrete” 벽

오스트레일리아의 파울 리터(Paul Ritter) 氏가 새로운 콘크리트 부조 방법인 “Sculpcrete”를 발명하였다.

그는 섬세한 장식의 샹넬리어, 전등갓, 꽃병, 여러가지 틀, 재털이, 조각작품들, 타이리, 벽판, 심지어는 비석까지도 이런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

“Sculpcrete”란 조각(Sculpture)과 콘크리트(concrete)를 합친 단어라 한다. 그는 벽판을 만드는데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평편한 벽판은 너무 단조롭고 인상적이지 못하며 매력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Sculpcrete”식으로 벽을 만들어도 평범한 콘크리트로 만드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드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 “Sculpcrete”식 벽판은 광택이 나게 할 수도 있고, 안나게 할 수도 있으며, 벽을 매끈하게 만들거나 울퉁불퉁하게 할 수도 있으며, 크기도, 작기도 할 수 있는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장점이 있다 한다.

리터(Ritter)씨는 오스트레일리아 서부 Perth에서 살며 작업하고 있다. 그곳에서 그는 Perth 市議員이며 建築家 고문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는 고향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때로는 일년에 몇 주 일간씩을 해외에서 강의하며 보내고 있다. 또 그의 널리 알려진 저서로는 Planning for Man and Motor, The Free Family, Educration 등이 있으며 올해(1974년)에는 Encyclopaedia of Australian Planning을 완성할 계획이다.

리터(Ritter)씨가 “Sculpcrete” 방법을 고안한 것은 1969년이었으며 그의 첫 번째 성공작품은 한 유치원의 벽에서였다. 하지만 그가 이 방법으로 국내외에 크게 공헌한 것은 1973년도에 이르러서였다. 그리고 1974년도에는 더욱더 바빠지게 되었다. 그는 이 방법에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이해(1974년) 말 그는 영국, 서독,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각국을 여행하면서 강의도 하고 그의 “Sculpcrete” 방법으로 만든 작품들도 전시할 계획이다.